

목포시, 행남자기에 25억 지원키로

본사·상동 공장이전 따른 비용·손실 보전

시, 향토기업 존치 차원 을 추경 편성 계획

목포시가 지역유일의 향토기업인 행남자기에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행남자기 본사 및 상동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과 손실 보전으로 2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남자기는 상동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경기도 여주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150여억원을 투자해 연산동에 매월 40여 만개의 생활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 2만6850㎡(약 8136畧)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이전했다.

행남자기는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14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6억원(시설이전 10억, 리모델링 15억, 영업 손실 7억, 인건비 등 4억)에 대해 목포시에서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상동 공장 일대가 2000년 6월 공업단지에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전환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기됐은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향토기업 관의 유출 방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

남자기와 30회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일 지원방침을 정했다.

시의 지원 규모는 영업시설 이전 7억7400만원, 리모델링 10억7000만원, 인건비 2억1500만원 등 총 25억원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제1항 4호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0조 등을 ‘포괄적 의미’의 지원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경찰서 김중익 사무국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지원은 지방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타 지역으로 기업을 빼앗길 경우 고용문제 등 피해가 많은 만큼 교육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 김모(47)씨는 “기업도 고향에 거역의 재투자자를 한 만큼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향토기업 존치를 신규기업 유치로 확대해석한다면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남자기와 공장이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연차적으로 2~3년에 걸쳐 이을 분할 지급할 예정으로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1942년 산정동에서 첫 가마를 연 행남자기는 순수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7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초의 도자기 기업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진도 ‘전복 양식섬’ 조성

진도에 전복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단지인 양식섬이 조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없어서 못 파는’ 전복·해삼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섬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으로 진도에 전복섬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복양식단지 10개소와 해삼양식단지 50개소를 조성하고 각각 3억불씩 수출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전복섬 1개소(진도)와 해삼섬 6개소(태안, 인천, 통영, 양양, 제주, 군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에는 우선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부자 농어촌’ 을 예산 30% 투자”

“군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해남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13일 2013년 계사년 새해 군정 목표표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매력있는 문화·관광·스포츠 육성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녹색환경 건설 ▲참여와 신뢰의 공감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올해 해남이 전국 최대 농어업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을 살려 ‘부자 농어촌’ 실현에 중점을 맞췄다.

올 예산 4152억원 가운데 농업 분야에 30.6%를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예산은 친환경단지조성 지원과, 농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전지기지가 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김 양식산업 육성, 조স্য 생산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파, 약용작물, 방호박 등 13종 700여 ha에 이르는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나서고 해남 전체 양식면적의 11.5%를 친환경 김 인종지구로 지정, 친환경 김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해 어민들의 어깨도 가볍게 해줄 생각이다.

해남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있는 자원 발굴 및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특화작목 육성 최우선

스포츠 마케팅도 주력

법정스님 생가 복원사업, 독립운동 체험마을 조성 등 문화·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광상품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한편,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땅굴 순례문화관, 명랑대첩 기념전시관, 땅굴 해양자연사박물관, 녹색미로공원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남의 사계절 좋은 날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스포츠마케팅에도 주력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도 유치하기로 했다.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녹색 환경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박 군수는 “특색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화봉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산이 구상지구 기업도시조성 지원과 우수영~제주 간 패속선 취항으로 해남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영과 좌일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소득향상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추진, 산림휴양시설 조성, 치유단지 조성, 자연계길 조성 등도 예정돼 있다.

나누고 함께 하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 같은 각종 시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을 유도해 청렴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 군민대학, 주민자치대학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도 만들 방침이다.

박 군수는 “2013년 해남에 새로운 변화와 빛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업,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 철저히 준비한 만큼 자신있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그물질 한번에 3억700만원 횡재

목포 앞바다 ‘조기 로또’

새해 첫 출어에 나선 한 어선이 3억700만원 어치의 조기를 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간혹 3일 조업에 3억원 가까이 잡은 어선은 있었지만 한 번 던진 그물에 이처럼 많은 조기를 잡은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목포선적 40t급 유자망어선 207해상호가 ‘조기 로또’를 만난 것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제주 인근 해상. 5시간 전에 투망한 그물을 올

리자 조기가 촘촘히 박혀 끌어올리기조차 힘들었다.

선장 송명도(53)씨는 “조기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그물을 본 적이 없다”면서 “꿈인지 생사인지 한동안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보통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5시간이 걸리지만, 선원들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다. 무려 17시간 그물을 올렸다. 조기가

위낙 많이 걸려 무거운 그물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조기를 잡은 해상호는 그물째 싣고 지난 7일 목포항으로 돌아왔다.

선주인 최양섭(58)씨는 “부두에서 조기 따는 작업을 하는데 그물 코막다 조기가 걸려 있었다”고 웃음을 보였다. 상자 작업을 거쳐 이틀간 1679상자를 목포수협에 위판했다.

위판액은 3억700만원이었다. 어선 1척이 2억원대의 조기를 잡은 적은 있어도 3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목포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복

고창 방장산에 MTB공원

국내 최장 산악자전거 숲길·트레이닝 센터 조성

국내 산악자전거(MTB) 애호가들이 마음 놓고 즐길 공간과 시설이 전복 고창 방장산에 생긴다. 산악자전거공원은 방장산(해발 640m)에 선수와 애호가들이 숲속을 달리며 건강을 챙기는 국내 최장(15km)의 MTB 숲길과 가족이 이용하는 트레이닝센터로 이뤄진다.

MTB 숲길에는 대화와 산악마라톤은 물론 가족 걷기 여행을 즐기는 종합 레포츠공원과 자전거 체험 및 대회코스가 함께 조성된다. 트레이닝센터는 자전거 체력, 정비실, 세척시설, 편의시설을 갖춘다. 고창군은 2011년 구성된 자전거T/F를 중심으로 올해 자

전거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악자전거 전문가, 동호인, 선수 의견을 수렴해 코스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읍내와 3km에 떨어진 산악자전거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수입 증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미숙 산악자전거T/F 팀장은 “올해부터 지역 회원들과 함께 MTB무료 강습, MTB 함께 타기, 클럽회원 모집, 홍보 동영상 상영 등을 진행해 지역에 산악자전거 붐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음식쓰레기종량제 시행 10일만에 ‘없던일로’

정읍시 ‘줄속행정’ 비난

정읍시가 새해부터 음식쓰레기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시행했다가 원성이 높자 기존 방식으로 환원해 줄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과 음식점의 경우 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대형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중앙시스템에 전송돼 추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다. 또 개인주택은 개별 구입한 집(ℓ 당 50원)을 음식물 수거용기에 꽂아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선불집’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자 특히 개인주택 거주자들의 불편과 불만의 소리가 이어졌다.

선불집 방식이 익숙지 않은데다 주 2회의 수거시간에 맞춰 음식쓰레기를 내놓기가 쉽지 않고 특히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 잔반이 넘쳐나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정읍시는 주민의 계속된 원성에 11일부터 종량제를 보류하는 대신 종전의 정액제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도심권에 237억 투입 광한루원·소리 체험마을 등 조성

남원시가 도심권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 남원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전통 문화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13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광한루원 관광타운,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남원도예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237억원이 투입돼 죽향·쌍교·금동 일대 광한루원 주변에 조성되는 ‘광한루원 관광타운’ 내에는 전통문화체험단지, 한국의

집, 한옥체험관 등이 들어서며 구도심과 연계되는 거점관광지로 만들 방침이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은 노암동 420일대에 95억원을 들여 소리명상길, 생태주차장, 도로·광장을 조성할 사업이다. 특히 소리 아카이브관을 건립해 음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호남 좌도 음악의 발상지인 남원의 면모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15억원을 들여 꾸며지는 도예촌은 도예체험광장, 전시판매장, 도예공

원, 편의시설 등을 구성되는 도에 빌리지다. 이곳에는 심수관 도예전시관과 연계, 명실상부한 도예의 고장 남원의 명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예술의 거리사업은 구 군정주변에 4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통해 남원을 거대한 관광지로 꾸밀 생각”이라며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 신

전주시, 다문화 자녀 대학생 멘토 오리엔테이션

전주시는 13일 “지난 10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 등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뜻 깊고 남다른 동기를 갖고 참가신청을 한 자원봉사

자들로 효율적인 멘토링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의 인사말, 멘토 서약,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다문화아동 멘토링 설명, 그리고 기 자원봉사자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녹두장군 전봉준 탄생 157주년 기념행사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는 지난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역이었던 ‘녹두장군 전봉준 탄생 제15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강수 군수, 이왕재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전봉준 장군 후손, 전국기념사업회

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현수·봉정·현화의 봉정 의식과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끌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죽죽교(대나무죽에 솔잎, 창포 등을 넣어 발효시킨 증류주)를 올리는 봉주의식으로 구성됐으며 국악예술단 고창의 식전공연도 열렸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산동면 짚풀공예 공동 작업장 준공식

남원시 산동면 부동·부서마을에 자리 잡아 맥을 이어온 짚풀공예 공동작업장이 지난 11일 이환주 남원시장, 산동면 각 기관단체장을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7000만원을 전북도로부터 지원받은 이 공동작업장은 지상 1층 슬라브 구조물로 대지 160㎡, 건물 연면적

144.9㎡에 작업공간과 전시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부절마을 짚풀공예는 지난 2011년 아산시 전통공예품 공모전 및 전라남도 짚풀문화보존회 공예대전, 2012년 광주동구문화원 공예대전 등 1995년부터 지금까지 1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보상작업 착수

군산시는 13일 “해망동 보금자리주택건립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50억원이 확보돼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망동 1004번지 일원 2만2620㎡에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483세대(영구임대

주택 148세대, 국민임대주택 445세대)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날까지 감정평가들 모두 마쳐 토지 49필지 건물 57동에 대해 개인별로 보상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